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 일지역 남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최 소 영*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이라함은 12세부터 18세를 말하며 이 시기는 사회적 역사적 변화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기이며, 자신의 개인적 본성을 정의하는데에 관한 긴장이 시작되고, 급작스러운 생물학적 변화와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권이중, 1996).

이러한 청소년기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특히 중·고등학생은 입시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생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학교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폭력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저연령화, 집단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1996)이 서울의 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폭행, 금품갈취, 위협, 괴롭힘중에서 하나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약 57%라고 한다. 또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1996)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32.4%가 학교내 폭력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

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초·중·고생 10명중 7명은 주변에서 폭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외면하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학생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한국일보, 1997. 6. 7일자). 또한,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명중 4명꼴로 동급생이나 선후배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98, 한국일보). 이러한 사실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통하여 질적으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즉, 학교폭력이 집단화, 흉포화, 저연령화 되었고 여학생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유형도 단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괴롭힘,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같이 뚜렷한 동기없이 같은반, 같은 학교학생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괴롭히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박경길, 1998).

선행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특정지역을 피해 다니거나 폭력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흥기를 소지하기도 하며 미리 빼앗길 돈을 준비하고 다니거나, 기숙사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하는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식 속에

* 경상대학교병원

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귀현, 1996).

이러한 학교폭력은 현대사회가 빠른 속도의 다양한 산업발달에 의해 도시화 현상이 눈에 띄게 증대되면서 사회구조가 재편성되고 사회변동이 심화되면서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핵가족화, 비디오나 TV 등 대중매체의 역효과가 폭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 학교 폭력이 더 이상 확대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간호라 함은 질병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포함한 전인적 접근을 말한다. 간호사는 병원에는 간호사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의 간호사로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간호사들이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부에서 주로 관리되고 있는 폭력실태를 양호교사들이 협조하여, 피해학생의 관리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의 원인 파악과 앞으로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서 더 이상을 피해를 줄이는데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연령비례로 중고생을 포함해 조사한 바가 있고(김준호, 김선애, 1992), 학생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써 폭력범죄 피해나 가해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다(김종국, 1974; 한국 청소년 개발연구회, 1996; 충남 종합 상담실, 1995). 간호학이 아닌 타분야에서 학교폭력실태를 연구한 학위논문들이 있으나(박규탁, 1992; 유배호, 1992; 김경안, 1996; 최귀현, 1996; 문정선, 1997; 나선수, 1997; 박경길, 1998),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전인 간호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들이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학 문헌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입시문제에 가장 고민하고 신체적, 정신적 혼란의 시기인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발생 빈도와 유형, 대처방법 등을 조사하여 학교폭력 발생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2) 학교폭력가해 실태를 알아본다.
- 3) 학교폭력피해 실태를 알아본다.
- 4) 학생들이 생각하는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II. 문헌 고찰

1. 학교폭력의 개념

폭력이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언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유형에 따라 대체로, 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 ② 분노나 공포, 좌절 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표현적 폭력 ③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이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공격적 폭력 ④ 공격적 폭력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Jenkins & Gowdey, 1991).

학교 폭력의 정의는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무엇인가와 폭력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지를 관련시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학생신분이라는 점과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안과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범주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어의 'mob'은 폭력에 가담한 다수의 익명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고통을 줄 때에도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폭행(mobbing)의 개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경우와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이동진 역, 1996).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5)에 의하면 폭력이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내·외적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행동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뿐 아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위반 등 심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본다(청소년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1995).

본 연구에서의 '폭력'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학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폭력으로 금품갈취, 폭행, 성폭행, 협박으로 한정한다.

2. 폭력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McClintock(1981)는 폭력을 그 유형에 따라 도구적 폭력, 개인간의 폭력, 이념적 폭력, 동기없는 폭력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도구적 폭력은 강도나 성폭력과 같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공격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간의 폭력은 두 사람사이의 주먹다툼에서 불화관계에 있는 집단들간의 패싸움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를 말한다. 이념적 폭력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간에 주도권 다툼이나 적대관계에 있는 실력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동기없는 폭력은 뚜렷한 동기도 없이 닥치는대로 문화, 예술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홍금자, 1997 재인용).

홍금자(1997)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금품갈취, 폭행, 성폭행으로 나누어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다. 금품갈취는 법적으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불법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폭력행위에 포함시킨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로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유 및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한다. 이에는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강간, 강제추행이 포함된다.

3. 학교폭력의 특성과 실태

권이중(1996)에 의하면 청소년 폭력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청소년 폭력이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셋째, 폭력행위가 비행 청소년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모든 청소년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행유형이 되고 있으며, 셋째 청소년 폭력이 집단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의 특징이며, 여섯째, 여학생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폭

력과 금품갈취 이외에도 집단적인 따돌림과 놀림, 시험지 조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숙제나 심부름시키기 등의 새로운 형태의 심리폭력이 출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일회성 단순폭력보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소위 학대적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실태조사를 통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경험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각 연구마다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가 상이하어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하면 학교폭력의 상황이 결코 방치될 수 없는 사회문제이고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박경길, 1998).

형사정책연구원(1995)이 조사한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결과에 의하면, 1990년 3704건, 1992년 5192건, 1995년 8월까지 4044건의 학교폭력이 적발되었다. 피해내용으로는 금품피해가 22.6%, 폭력피해가 12.1%, 협박등 심리적 피해가 15.8%로 나타났으며, 전체학생의 36.1%가 피해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설문조사(1995)결과에 의하면, 지난 한 해동안 폭행을 당한 학생은 초등학생 43,738명, 중학생 103,829명, 고교생 49,215명으로 모두 1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빼앗긴 금품은 초등학생 2억3천7백여만원, 중학생 9억5천4백여만원, 고교생 4억7천8백여만원으로 모두 42만여명의 학생이 총 16억 6천9백여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1995).

충청남도 청소년 종합상담실(1994)이 중,고등학생 9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한 학교생활, 건강한 청소년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1-2년 사이에 금품갈취나 절도당한 경험이 33.1%,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은 30.8%,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은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놀림을 당한 경험이 20.6%, 성추행 15.9%, 성폭력 3.6%로 나타났다(최귀현, 1996). 이상의 자료를 볼 때 학교폭력은 이미 위험수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대상은 경남 진주 시내 소재의 3개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1999년 3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해당학교의 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나누어주게 하고 기제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불완전하게 기

제된 설문지를 제외한 620부를 본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나선숙(1997)이 작성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폭력가해 실태 6문항, 폭력 피해실태 13문항, 폭력방지 대책 4문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의 처리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였으며, 해당문항에 대하여 전체, 폭력피해유무에 따라 각각의 빈도와 퍼센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라 t-test, ANOVA, X²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이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 부모의 학력중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301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도 고졸이 282명(45.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직장유무에 있어서는 두 분다 있다가 303명(48.9%)를 차지하여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동거형태에 있어서는 부모와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가 366명(59.0%), 편모가 14명(2.3%), 편부가 6명(1.0%)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은 중간정도가 354명(57.1%), 한달용돈은 1만원에서 3만원이 238명(38.4%), 가정형편은 중간이 430명(69.4%), 마지막으로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일반주택가가 272명(43.9%)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 설문내용 분석

1) 폭력가해 실태

폭력가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폭력 가해경험, 폭력의 가해 원인, 가해후의 느낌과 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벌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1) 폭력가해 경험

학생의 폭력 가해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620)

일반적인 특성	구 분	N(%)
학 력 부 모	국졸이하	72(11.6)
	중 졸	128(20.6)
	고 졸	301(48.5)
	대졸이상	119(19.2)
	국졸이하	91(14.7)
	중 졸	207(33.4)
직장 유무	고 졸	282(45.5)
	대졸이상	40(6.5)
	두 분 다 없다	29(4.7)
	어머니만 있다	39(6.3)
동거 형태	아버지만 있다	249(40.2)
	두 분 다 있다	303(48.9)
	편 모	14(2.3)
	편 부	6(1.0)
	부 모	92(14.8)
	부모+형제	366(59.0)
성 격	조부모+부모+형제	97(15.6)
	기 타	45(7.3)
	하	167(26.9)
	중	354(57.1)
한달 용돈	상	99(16.0)
	1만원이하	81(13.1)
	1만원~3만원	238(38.4)
	3만원~5만원	195(31.5)
가정 형편	5만원이상	106(17.1)
	하	23(3.7)
	중 하	99(16.0)
	중	430(69.4)
주거형태	중 상	62(10.0)
	상	6(1.0)
	논·밭 많은 곳	112(18.1)
	일반주택가	272(43.9)
기 타	아파트 단지	154(24.8)
	공장 주변	18(2.9)
	상점·점포가 많은 곳	33(5.3)
	유흥업소	11(1.8)
	해안가	7(1.1)
	기 타	13(2.1)

된 문항에 대한 복수 응답결과는 표 2과 같으며, 학생이 행할 수 있는 폭력가해 상황을 8가지로 제한하여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우에게 험담, 욕설,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63.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교내

기물파손, 구타나 폭행의 순이었다. 경남지역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형진, 천성문(1997)의 연구에서는 구타가 70.1%로 가장 많았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한 최귀현(1995)의 연구에서도 구타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39.5%로 가장 많았고, 폭언을 한 경험은 그 다음 순으로 37.54%로 나타났다.

〈표 2〉 폭력가해 경험 (N=620)

폭력가해 경험	유 N(%)	무 N(%)
급우에게 험담·욕설·폭언	391(63.1)	229(36.9)
성적놀림·성추행·성폭력 가한 경험	59(9.5)	561(90.5)
위협하거나 때려서 물건이나 돈 빼앗기	69(11.1)	551(88.9)
구타나 폭행가한 경험	141(22.7)	479(77.3)
폭력에 이용할 흉기조지 경험여부	60(9.7)	560(90.3)
폭력조직·불량씨클 강제가입 및 학교 내외의 폭력 씨클 가입여부	16(2.6)	604(97.4)
조직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집단 싸움	27(4.4)	593(95.6)
학교내 기물파손	189(30.5)	431(69.5)

(2) 폭력의 가해 원인

험담과 욕설, 폭언, 구타나 폭행, 성폭행의 경험에 대한 이유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가지 형태로 총 260명이 응답했다.

상대방이 모독해서라는 이유가 56.9%였고, 아무런 이유없이 25%, 겁주기 위해서 20%순으로 나타났다. 하형진과 천성문(1997)의 경남지역 중, 고등학생의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폭력피해 이유는 금품갈취가 27.8%, 이유없이 그냥 10%, 말을 잘 듣지 않아서 3.7%,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7.5%,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어서 0.7%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응답결과로 볼때, 폭행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잘못에 대한 야단이나 꾸중이 부족한 요즘 시대에 청소년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되고 상대방의 조그마한 질책에도 참아내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과도기적인 사춘기 시기에 어떤 분노나 욕구를 표출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나 가정에 대한 불만등도 표출됨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런 결과를 통해 학교내에 가족의 역동이나 간호를 전문적으로 이수한 전문 상담교사를 두어 학생들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해 있는 양호교사의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상담과정을 이수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3〉 폭력의 가해원인 (N=260명)

폭력가해 원인	N(%)
물건이나 돈이 필요	39(15.0)
겁주기위해	52(20.0)
친구가 하나까	49(18.8)
보복을 위하여	19(7.3)
씨클등 규율유지를 위해	4(1.5)
남보다 강하게 보이기 위해	41(15.8)
담력과 용기를 키우기 위해	21(8.1)
상대방이 나를 모독해서	148(56.9)
학교의 불만	37(14.2)
가정에 대한 불만	26(10.0)
아무런 이유없이	65(25.0)
유혹비 마련을 위해	17(6.5)

(3) 가해후의 느낌과 폭력에 대한 학교처벌

학교폭력을 가하고 있는 실태를 학생을 통해 조사하고, 가해 학생이 가해후의 느낌이나 학교에 대한 처벌의 유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을 가한 뒤 느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21.5%, 후회했다 16.5%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선숙(199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폭력행사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반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있어 폭력에 대한 부당성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으로 폭력행사의 결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게하고, 그릇된 행동에 대한 깨우침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표 4〉 폭력가해 후 심리상태 (N=260)

폭력 가해 후 심리 상태	N(%)
보복 당할까 두려웠다	3(1.2)
경찰에 신고할까봐 겁이 났다	7(2.7)
후회했다	43(16.5)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145(55.8)
학교나 집에서 알게 될까 두려웠다	6(2.3)
아무런 느낌이 없다	56(21.5)

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벌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77.3%의 응답률을 보인 없었다는 항목이었다(표 5).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교자체내에서도 학교폭력을 막

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을 보인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학교당국이 이러한 학생들의 폭력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

〈표 5〉 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벌 (N=260)

폭력에 대한 학교의 처벌	N(%)
근 신	27(10.4)
유기정학	4(1.5)
무기정학	4(1.5)
퇴 학	4(1.5)
없 다	201(77.3)
기 타	20(7.7)

2) 폭력피해 실태

(1) 폭력피해 경험

폭력피해 경험은 10가지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간 폭력을 당해본 경험에 있어 가장 빈번히 나타난 폭력의 형태는 험담, 욕설 등 폭언이었으며 그 다음이 심부름, 시험때 답안지 보여주기 강요, 위협적 눈초리나 무언의 협박, 금품갈취, 급우간 무시나 따돌림, 폭력조직 가입강요, 성추행, 성폭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형진과 천성문(1997)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25.2%가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2) 폭력피해장소 및 시간

폭력을 당한 장소로는 운동장 및 화장실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7). 문정선(1997)의 연구에서 남학생중 학교내에서 폭행피해 경험은 37.7%에 해당하였고, 하영진과천성문(1997)의 연구에서도 학교안에서

의 폭행피해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피해시간은 하교시간이 3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등교후 점심시간으로 19.6%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폭력피해는 주로 학교내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영진과 천성문(1997)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폭력피해장소로 학교내가 가장 많은 34.5%를 차지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은 학교자체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표 7〉 폭력 피해 장소 (N=199)

폭력 피해 장소	N(%)
교실안	36(18.1)
운동장 및 화장실	76(38.2)
교내 매점	4(2.0)
복도 및 계단	7(3.5)
학교 주변 노상	12(6.0)
학원 · 도서관 · 독서실	3(1.5)
주택가 · 시내상가	17(8.5)
오락실 · 만화방	7(3.5)
버스 · 기차안	3(1.5)
해안 · 숲속 등 유원지	5(2.5)
변화한 시내상가	9(4.5)
기 타	20(10.1)
합 계	199(100.0)

(3) 폭력가해자 유형

폭력가해자 유형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학교 상급생이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량배나 잘 모르는 사람 25.6%로 나타났다. 최귀현(1996)의 연구에서 가해대상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대답한 남학생은 37.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형진과 천성문의

〈표 6〉 폭력피해경험 (N=620)

내 용	없다	횟 수 N(%)			
		1년에 1회	1년에 2-3회	1달에 1회	1달에 2회이상
험담, 욕설 등 폭언을 들음	419(67.6)	53(8.5)	32(5.2)	29(4.7)	87(14.0)
급우간 무시 · 따돌림 당함	576(92.9)	18(2.9)	7(1.1)	9(1.5)	10(1.6)
시험때 답안지 보여주기를 강요당함	552(89.0)	26(4.2)	26(4.2)	10(1.6)	6(1.0)
심부름(담배나 술)한적	547(88.2)	37(6.0)	19(3.1)	6(1.0)	11(1.8)
금품갈취	557(89.8)	41(6.6)	13(2.1)	4(.6)	5(.8)
집단구타나 폭행	581(93.7)	20(3.2)	13(2.1)	2(.3)	4(.6)
위협적인 눈초리나 무언의 협박	552(89.0)	27(4.4)	17(2.7)	9(1.5)	15(2.4)
성적 놀림이나 성추행	604(97.4)	4(.6)	5(.8)	4(.6)	3(.5)
성폭력	610(98.4)	4(.6)	1(.2)	2(.3)	3(.5)
폭력조직 · 불량씨클 가입을 강요	600(96.8)	9(1.5)	5(.8)	1(.2)	5(.8)

연구에서는 가해 상대방을 모른다가 36.5%로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 동급생인 경우가 25.5%, 선배인 경우 18.7%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폭력의 피해장소는 학교 내가 가장 많았고 가해자 유형도 학교 상급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학교 폭력의 근절은 학교내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 외 요즘 학교 분위기가 입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가중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내에서의 학교폭력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한 방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입시위주의 교과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의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 폭력가해자 유형 (N=199)

폭력가해자 유형	N(%)
같은 학교 상급생	111(55.8)
같은 학교 동급생	18(9.0)
같은 반 학생	6(3.0)
다른 학교 친구 및 선배	10(5.0)
불량배 및 모르는 사람	51(25.6)
기타	3(1.5)
합 계	199(100.0)

(4) 피해의식

폭력피해를 입은 199명을 대상으로 피해의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끔 느낀다고 33.7%로 나타났으며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 등도 35.2%가 특정지역을 피해 다닌다고 하였으며, 등하교 시 폭력에 대한 대비로 여러 명과 동행한다고 26.6%로 나타났었다(표 9). 이용교(1994)에 의하면 폭력에 대한 대비로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닌다고 18%였으며 나선숙(1996)에 의한 조사결과 여러 명 동행이 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폭력에 대한 대비형태가 적절한 자구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피해 사후처리

폭력을 당한 후 가장 먼저 알린 대상은 친구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rickson은 청소년기에는 동일한 행위와 관념을 속성으로 하는 동료집단을 형성함으로써, 서로 닮았다는 사실에서 마음의 정을 찾고 타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고 하였다(장인협, 오정애, 1993). 이러한 성장발달 단

계상의 특징으로 뜻에 맞는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서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모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호교사나 상담실을 찾는 경우는 각각 4.0%와 0%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학생들이 양호실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양호교사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런 모든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고 양호실이 단순히 아프거나 병이 났을때만 찾아오는 곳

〈표 9〉 피해의식-폭력피해를 입은 199명 대상

(N=199)

피해의식	평균±표준편차
폭력에 대한 두려움정도	3.56±1.11
전혀 느끼지 않는다	11(5.5)
거의 느끼지 않는다	17(8.5)
가끔 느낀다	67(33.7)
자주 느낀다	57(28.6)
항상 느낀다	47(23.6)
합 계	199(100.0)
등하교시 폭력대비	N(%)
대항위해 흉기 소지	13(6.5)
돈을 따로 준비	27(13.6)
몇 명과 같이 동행	53(26.6)
기타	106(53.3)
합 계	199(100.0)

〈표 10〉 피해 후 가장 먼저 알린 대상

(N=199)

먼저 알린 대상	N(%)
친구	112(56.3)
부모님	18(9.0)
담임선생님	8(4.0)
양호교사	4(2.0)
상담실	-
경찰	1(.5)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56(28.1)
합 계	199(96.1)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	N(%)
별일 아니라는 생각	30(53.6)
보복당할까 두려워	2(3.6)
남이 아는게 창피	4(7.1)
잘 아는 사이라서	1(1.8)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어서	16(28.6)
기타	3(5.4)
합 계	56(100.0)

이 아니라, 폭력예방이나 해결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폭력을 당한 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수가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폭력피해에 대해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야기해도 소용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해결여부로는 가장 많은 수가 흐지부지 되었다가 60.8%, 어느 정도 해결이 13.3% 보복을 당했다가 2.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문제는 아직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알 수 있고, 학교나 그 외 관련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3) 폭력 방지 대처 방안

학생들이 생각하는 폭력방지 대처방안은 표 11과 같다. 1순위는 청소년 여가 활동 공간 마련 265(42.7%), 2순위 바람직한 인간관계 교육 261(42.1%), 3순위 철저한 폭력장소 단속 179(28.9%)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폭력방지의 대책으로는 폭력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학교의 전통적인 대응인 '철저한 폭력단속' '선도활동 강화' 등도 중요하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의 탈피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과 적성 및 소질 능력을 고려한 열린 진로지도, 청소년 놀이공간 마련

<표 11> 학생이 생각하는 폭력 방지대책소 (N=620)

폭력방지대처방안	N(%)
바람직한 인간관계 교육	261(42.1)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교육	83(13.4)
입시위주의 교육 탈피	173(27.9)
처벌위주의 대응방식 금지	78(12.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97(15.6)
청소년 여가 활동 공간 마련	265(42.7)
철저한 폭력장소 단속	179(28.9)
선도 및 단속활동 강화	125(20.2)
대중매체의 폭력성 저질화 개선	31(5.0)
자율적인 씨클활동 보장	78(12.6)
적성·소질·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131(21.1)
학교내 상담실 및 폭력피해신고센터운영	67(10.8)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관심과 배려	93(15.0)
가해 학생을 지도할 전문인 양성과 교정 프로그램 개발	76(12.3)
기 타	18(2.9)
합 계	620(100.0)

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9년 3월25일부터 3월30일까지 진주시 내 3개 남자고등학교 남학생 622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폭력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문제점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기초로 삼고자 시도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폭력가해 실태에서 험담,욕설, 폭언등을 행한 경험(63.1%), 학교내 기물파손(30.5%), 구타나 폭행을 가한 경험(22.7%), 위협하거나 때려서 돈뺏기(11.3%), 성폭력등은(9.5%) 순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19%정도는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이유로는 상대방이 모독해서라는 이유가 56.9%로 가장 많았고, 아무런 이유없이 25%, 겁주기 위해서가 15.8% 순이었다.

가해 경험후 이들은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있을 정도로 폭력에 무감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폭력피해의 실태와 관련해서는 학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야 할 학교내에서38.2%로 가장 많았고, 피해시간은 하교시간에 34.7%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폭력피해의 형태에서 험담이나 욕설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심부름, 시험때 답안지 보여주기 강요 등이었다. 가해자의 경우 같은 학교 상급생이55.8%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이 폭력피해에 대해 별 일 아니라는 생각을 53.6%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이야기 해도 소용이 없다는 응답이 28.6%로 나타난다는 결과는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흐지부지 되었다 라는 응답이 60.8%로 나타나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해결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느낀다가 23.6%였으며, 두려움으로 인해 특정지역을 피해 다닌다가 35.2%로 나타났다.

3.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방지 대책으로는 청소년 여가 활동 공간 마련이42.2%에서 나타났고, 바람직한 인간관계 교육이 42.1%, 철저한 폭력장소 단속이

28.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 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여학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차후 여학생과 학교폭력 실태와 유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와 학교폭력과 가정환경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김경안 (1996). 한국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호, 김선애 (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권이중 (1996). 한국 청소년 폭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 폭력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한일 국제세미나.

권이중 (1996).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서울.

나선숙 (1997). 학교폭력 실태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1995). 학교폭력제미나 자료집.

문정선 (1997). 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박경길 (1998).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규탁 (1992). 청소년 비행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배호 (1992). 청소년 비행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교 (1994) 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충청남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장인협, 오정애 (1993). 아동, 청소년 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최귀현 (1996). 학교폭력 실태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1996).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서울: 한울림.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1996). 폭력은 싫어요.

충남 청소년 종합상담실 (1995). 청소년과 폭력. 제1회 심포지움 자료집.

하영진, 천성문 (1997). 경남지역 중, 고등학생들의 학

교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춘해대학 논문집, 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범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일보. 1998년 3월 31일자.

한국일보. 1997년 4월 7일자.

한국 청소년 개발 연구회 (1996).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한국 청소년 개발원 (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구. 청소년 육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4.

홍금자 (1997). 학교폭력과 학교사회사업의 개입. 학교폭력과 사회복지의 과제. 서울: 학교사회사업학회 발기 위원회.

Jenkins & Gowdey (1991). Prekition of Violence. Springfield; charles co, Thomas Publisher.

- Abstract -

Key concept : School Violence

The Study on Violence Status in High School

- Based on One Area High School Students -

Choi, So Young*

The reality of violence involving youth has recently increased and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study was done to identity violence related feetors including types of assault, victim status and a violence preventive plan. The subjects were students in boy's high schools in the Jinju area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The research was done to demonstrate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and to determine the origins of the problems present measures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1. The types of assault included slander, violent language to classmates, destroying school property, stealing money by beating and violent conduct, sexual harrassment or sexual violence. About 19% of the high school students had experience as violent assaulters.

*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reasons for such assault were abuse by the victim, discontent at home & school and for amusement with friends without any reason.

2. With respect to the status of damage by violence most cases took place within the school which is considered to be safe for students. Violence such as slander, abuse, violence language, disregarding or excluding took place the most at school and in case of the assaulter it was a college student or a student in the senior grad.
3. As for measure to prevent violence identified by

the students, the need to provide space for youth leisure activity was listed as important along with the need for guidance for the future which took into account suitability related to the student's ability and the need to get rid of education mainly for entrance exams.

Endeavors to prevent violence must be persistent in all aspect, so that such inhuman like violence will not appear and the negative elements raised by youth will be solved one by one.